


| | | |
|---|---|-----------------------------|
|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
| | 발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 | 문의 | 이은선 공동집행위원장 010-9286-4347 |
| | 발송일 | 2022년 5월 5일 (목) |
| 제목 |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 |
| 붙임 자료 | [붙임 1]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문 [붙임 2] 기호 0번 청소년 포스터 및 스티커 [붙임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 |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148,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안내 및 인사
- 노래 배우기
- 공약 이어말하기 “나는 000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다”
 - 발언 1 :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2 :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3 :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4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5 : 학습시간 줄이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6 :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발언 7 :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 새로 쓴 어린이날 선언문과 출마 선언문 낭독
- 어린이날 울동 퍼포먼스
- 종료(스티커 배포)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7. 9. 26. 출범한 전국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입법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을 통해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연령 하향, 학생인권법 발의와 같은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2022. 5. 5.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정책요구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선언과 공약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 발언문 작성에는 투명가방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우리동네노동인권찾기(동아리 처음처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목: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148,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의 취지 : 새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요구(출마 퍼포먼스)를 발표한다. '청소년이자리홀라당'에는 단순히 정책에 지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현실에 저항의 의미가 담겨있다.

순서

○ 기자회견 안내 및 인사

○ 노래 배우기

○ 공약 이어말하기 "나는 000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다"

- **발언 1 :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입시 경쟁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교육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경쟁의 결과에 따른 승패와 돈을 지불할 능력으로 제한 짓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교육에서 경쟁 체제를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싶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학교는 모의고사가 끝나면 교무실 앞에 1등부터 100등까지 성적순으로

학생의 이름을 줄 세운 종이를 붙이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동료 시민과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성적으로 서로를 인식해야 했습니다. 성적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함께 사는 법, 차별하지 않는 법, 약자를 존중하는 법, 혐오하지 않고 말하는 법, 내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사람을 구별 짓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서울대 합격률이 21배 높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특목고를 나온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서울대 합격률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65배 높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 대학에서 교육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엄연히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는 서울대 출신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르는 교육의 결과에 따른 차별은, 다른 교육을 선택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을 영원히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불평등한 교육은 은폐하는 불가능한 수사일 뿐입니다. 저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쟁은 시민의 자질이 아닙니다. 대학은 자본주의가 아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존재해야 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쟁하지 않고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입시 경쟁에 반대하고 대학을 평준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 발언 2 :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내건 청소년이 자리 홀라당의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어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별을 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는 일반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규제와 억압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자유롭고 다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시험은 입시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치열하여 입시경쟁이라고 불립니다. 입시경쟁의 승리와 패배로 학생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혜택도 달라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우와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 마냥 그렇게 학교가 돌아갑니다. 학교는 차별을 가르칩니다.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네 지금 공부 못하면 노가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사는 건설 노동자를 비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느낀 이들 모두가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느낀 것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교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차별발언을 한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해서 그 차별이 당연시되면 안되지만 이 사례와 같이 위치에 따라서 차별을 차별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성별이분법적인 관념으로 지정성별에 얽매어 행동을 규제받고 정해진 틀

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규제받는 청소년의 모습이 당연한 것 마냥 이야기하거나 겉보기에는 다양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지만 실상 학교에 와보면 무채색의 옷과 정해져있는 교과서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정해진 글들을 외워야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이 자유롭고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다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제 나이를 기입하게 되면 아무 아르바이트 공고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활동가는 구순구개열이 있어서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도 보지 못한 일도 있었고 알바 첫 날에 통보식으로 잘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념으로 인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잘 모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제 동료 활동가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은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을 하는 것. 여러가지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 관념들이 겹치니 화가나고 속상했습니다. 청소년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장시간동안 요구를 해왔지만 오늘날까지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못한 사이에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꼭 제정되어야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는 세상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만들어 내겠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였습니다.

- 발언 3 :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2006년 학생인권법이라 불리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불발된지 16년 대한민국의 첫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교자치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자치조직은 담당교사의 막강한 권력으로 모든 결정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교사의 비합리적인 개입에 항의하자 명예훼손, 학내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인권침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마길이를 측정한다며 여학생의 치마에 손을 대는 교사, 자신의 푸른눈이 렌즈가 아니라 유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혼혈가정 학생, 급식에 나오는 육류를 그대로 먹으며 지옥 같은 점심시간을 맞이하는 채식주의자, 학교에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고 마는 트랜스젠더 그 외에도 두발 및 복장 규제, 휴대전화 수거, 직간접적 체벌 등 학생을 인간으로 보기보다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인간취급을 하지 않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공약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과거보다

좋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는가? 맞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아졌고, 두발자유 같은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구조는 여전하고 그 사소한 것조차 16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은 모두가 평등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차별없는 학교, 학생자치가 제 역할을 하는 학교민주화, 다양한 머리카락과 다양한 복장 다양한 사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으로 학생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균열을 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학생은 인간이다. 학생은 시민이다. 외치며 불합리한 통제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저는 16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일찍부터 청소년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린 니가 뭘 할 수 있겠어"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아도, 허드렛일을 할 때에도, 감정 쓰레기통 처지가 되어도, 외모 품평을 받아도 주변에서는 "어차피 학생이다"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었고 이렇게 해도 본인들은 손해 볼게 없다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청소년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실습처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 현장실습처의 열악함은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파다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안타까운 산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이 노동하는 공간에 청소년 노동 전문 근로감독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확충되어야 하며 사각지대에 밀려난 청소년 들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끝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5 : 학습시간 줄이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시간 줄이기를 내건 청소년이 자리 홀라당의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학교에서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을 채우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고등학교들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아예 여름방학을 '0일'로 해 보장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 결손은 코로나19 교육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그 속에서 학생의 휴식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업일수를 줄일 수 없어 방학일수를 줄이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 원인은 최대 0일이 아닌 최소 0일로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있습니다.

수업일수는 줄이고 방학일수는 늘려야 합니다. 수업시수는 줄여 9시 등교와 3시 하교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규 수업시간 외 보충학습을 철폐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제한하여 학생들의 쉼 권리를 지금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날짜와 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학생의 휴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결석하거나 조퇴 또는 지각하는 것이 처벌과 출결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묻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병, 가족 여행, 학교장 승인 등 협소한 '인정결석'의 기준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함께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지는 않더라도 너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학교, 오전에 열리는 학교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나 행사 또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교사에게 알릴 수 없는 일정에 청소년이 편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상상해봅니다. 학생의 휴식권과 자신의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통제와 처벌 중심의 반교육적인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학습시간 줄이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6 :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성평등 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을 내건 기호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2018년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문화를 고발한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는 불평등하고, 통제적인 학교 구조로부터 유구하게 이어져온 폭력입니다. 몇몇 가해 교사들의 자극적인 발언에도 학생들이 전혀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학교의 막막한 현실을 보여준 고발입니다. 며칠 전 김병우 충북 교육감은 스쿨미투로 상처 입은 학생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자세입니다. 스쿨미투 뿌리뽑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가해가 가해로 명명되지 않고,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학교에서 당장 폭력과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피해 사실 증언을 반복하면서도 고발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던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실행합니다. 단순히 페미니즘 과목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과목과 학교 내 모든 관계 자체를 페미니즘적으로 상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쿨미투는 단순히 한두명의 나쁜 교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4050 여성들까지 기울어진 권력 구조라는 밑바탕에서, 교사의 일방향적인 말하기는 언제나 폭력의 가능성을 함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스쿨미투 가해를 제대로 처벌하고 학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반이 될 차별금지법을 모든 후보에게 공약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리다는, 미성숙하다는,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감내해야 할 폭력은 없다는 것을 차별금지법이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투표권도 없고 주권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들의 삶 역시 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7 :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책 수립을 내건 기호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연간 27만명의 청소년이 부당한 통제와 폭력, 방임 등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없었던 원

가정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존엄과 자유를 찾아 나온 이 사회에서도 청소년이 살아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찾아 사회와 국가의 문을 두드렸을 때 사회와 국가는 청소년을 무력하고 문제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며 보육원이나 쉼터와 같은 시설로 보냈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1만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이 지내고 있고, 매년 3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쉼터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시설은 청소년들의 선택이나 의견보다 운영을 하는 사람과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되어집니다. 시설에서 살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들과 집단생활을 감수해야 했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편해야 할 공간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눈치보야 했고, 엄격한 규칙과 권위에 순응해야했습니다. 시설은 내가 나 일 수 없는 공간이었고, '집'이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탈시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설에서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잘' 생활 해야지만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위주의 지원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집다운 집', '진짜 집'에서 살아야합니다.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은 청소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 입니다. 탈시설을 권리로 선언합니다. 현재 시설 중심의 정책을 탈시설 기조로 재수립하고 탈시설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겠습니다. 또한, 탈시설 이후 청소년이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교육, 일자리, 의료, 상담 등 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역시 동시에 보장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거정책도 만들겠습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청소년도 이 지역사회의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 쓴 어린이날 선언문과 출마 선언문 낭독

○ 어린이날 울동 퍼포먼스

내나라 청소년 말할 자리를/ 들어라 세상아 우리 외침을

오월은 푸르구나 기호0번 출마한다/ 우리는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어린이 아랫사람 아닌 사회를/ 바꾸자 학교를 인권적으로

멈춰라 입시경쟁 보장해라 휴식정책/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노래 개사)

4. 2019. 12. 27. 투표 연령이 18세로, 2021. 12. 31.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2022. 1. 11.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청소년이 투표하고, 출마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첫 지방 선거입니다.

5. 청소년의 정치 참여 통로가 확대되긴 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의 삶과 권리를 외치는 목

소리가 차지할 정치적 자리는 거의 없고,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공약과 정책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며 시민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새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정책요구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출마선언과 공약말하기 형태로 발표합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단순히 정책에 지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현실에 저항의 의미를 담은 ‘청소년이 자리 홀라당(黨)’이라는 당명으로 출마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학습시간 줄이기’,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정책으로 요구하는)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7명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의 시작과 끝에는 새로 쓴 어린이날 노래도 함께 불렀습니다.

7. 100년 전 첫 번째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새 대통령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100번째 외쳐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8.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문

[붙임 2] 기호 0번 청소년 포스터 및 스티커

[붙임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붙임 1]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비청소년 시민 여러분. 저는 어린이청소년이 배제된 선거 국면에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로 출마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922년 제 1회 어린이날에 선언되었던 어린이 인권이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사회의 모습은 어린이 인권 보장의 요구를 100년간 묵혀왔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린이날이면 다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날이라며, 대개 양육자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 이들의 행복을 삽니다. 저는 이 선물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정 여건에 따라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냥 어리고 귀엽지 않다고 여겨져 선물을 받지조차 못하며, 스스로 선물을 살 경제적 권리도 없는 중간지대의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선물로 통질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살아내는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오늘도 우리는 어린이 손님을 거부하는 노키즈존 가게, 폭언과 폭력, 두발복장규제가 만연한 학교를 봅니다. 각자도생의 사회를 따라 입시경쟁의 판을 까는 학교와 학원과 교육당국,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만연한 일터를 봅니다. 또한 청소년이 폭력적인 학교와 가정을 넘었을 때 어떠한 교육자원도, 돌봄자원도 없는 사각지대를 봅니다. 선거권/피선거권에서는 만 18세, 정당가입에서는 만 16세와 법정대리인 동의의 허들을 넘지 못한 청소년들은 나설 수조차 없는 정치판을 봅니다.

이토록 어린이청소년차별적 세상에서, 오늘은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출입이 거부되고, 학습노동에 착취되며,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사회 다방면으로 폭력적인 나이위계에 시달리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오늘 하루 선물을 들이키는 것으로 어린이날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오늘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세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학교의 폭력적인 위계문화를 뿌리뽑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몸은 그들의 것이며, 학교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몸을 세세히 규제하는 두발복장규제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생인권침해 없는 학교, 학생인권보장이 당연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여성·퀴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고 스킴미투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 보장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경쟁교육이 아닌 권리로서의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이 아니라 입시폐지입니다. 학벌계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니다. 또한 과열된 입시경쟁 속 학습노동으로부터 청소년이 해방될 수 있도록, 휴식정책을 마련하여 학습시간을 줄이고 쉼을 보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몸들이 교육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주의적·경쟁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가정을 넘어 어린이 청소년의 삶의 반경을 넓히겠습니다. 어디서든 어린 사람이 아랫사람으로 대우받지 않는 사회,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노키즈존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나이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법을 제정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교육 예산을 마땅히 그들의 몫대로 분배하겠습니다. 청소년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여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함께하는 정치가 되도록 선거권 연령을 점층적으로 하향하겠습니다. 할당제 실시, 쉬운선거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소년이자리홀라당, 청홀당은 한 표가 없는 이들의 움직임입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은 한 표가 없는 이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표가 없는 자들의 표를 외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의 해방을,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합니다.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때까지, 표를 위해 유세할 수 있을 때까지 청홀당의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의 말할 자리를 내놓아라!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장소 : 광화문 소라탑 광장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안녕!
러움!

노이즈 존
반대

학교 접근성
보장

어린이날 100주년

엘리베이터
사용/설치!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학생인권법
있는 나라!

인권 침해
없는 학교

어린이날 100주년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청소년의
swing

어린이날 100주년

당당하게
앞으로!

청소년이
자리
플라임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물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물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조직현황

1) 참여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21.09.20 현재 371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전국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교육공공성 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성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연맹 호남지역위원회**/ **문화행동 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민주청소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정경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 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예비당원협의회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사조통-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도포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명동**/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주권회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튜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급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천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

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홍천골프장대책위,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여성농민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 설립준비위 새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동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꽃길메이커, 나래(온세미 학교, 우다다학교,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등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노동당전남도당/ 녹색당전남도당/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중고등학생회연합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중당전남도당/ 어린이도서연구회전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순천지회/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무지개학부모네트워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지역아동센터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과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동충북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례회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온갖문제연구실/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습/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터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동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및 참여 개인들

※ 지역제정연대 출범 지역 :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전남, 제주, 충북

2) 조직체계



-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 광노현(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수정(민변/법무법인 지향), 김찬(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레빗(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서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대표), 일음(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전희영(전교조 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

: 김부정(참교육학부모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민선(전교조), 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쉼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 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단 다섯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 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서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22년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 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